



외
야
는
기
회
의
땅



KIA, 나성범·최원준 이탈에 외야 파격 라인업
'함평 타이거즈' 박정우·오선우·정해원 '어필'

KIA 타이거즈의 외야가 반전을 위한 격전지가 됐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예상과 다른 봄날을 보내면서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타격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예측불허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내야가 고민이었다. 개막전에서 김도영이 헬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고, 박찬호와 김선빈도 재활군 신세가 되면서 전력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내야의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자 외야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장' 나성범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올 시즌 기대를 모았던 '예비 FA' 최원준의 부진도 깊어지면서 KIA의 타격이 틀러코스터를 탔다.

부상과 부진이 겹친 외야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5일 키움전에서 파격적인 라인업을 제출했다.

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최원준을 말소하듯 이날 이범호 감독은 정해원을 콜업해 8번 타자 겸 우익수를 맡겼다. 이범호 감독은 또 좌익수 오선우(6번 타자), 중견수 박정우(9번 타자)로 외야를 구성했다.

3년 차 정해원에게는 프로 데뷔전, 대졸 7년 차 오선우는 이날 경기 전까지 1군에서 146경기 229타석을 소화한 게 전부였다. 이 중 가장 많은 1군 경험이 있는 9년 차 박정우에게도 156번째 경기였다. 타석 수로는 오선우보다 적은 156타석을 경험했던 박정우다.

박정우가 '함평 타이거즈'라고 표현할 정도로 KIA는 파격적인 외야 라인업을 내세웠고, 이 경기에서 13-1 대승을 거뒀다. 세 외야수는 6일에도 나란히 외야를 지켰고, KIA는 연승을 기록하면서 변화 효과를 봤다.

팀의 위기가 이들에게 기회가 됐다. 특히 박정우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강건 중견수로 외야를 굳게 지켜야 하고, 김도영의 부상 여파로 인한 기동력 고민에도 박정우의 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을잔치'까지 경험했던 만큼 위기의 외야에서 지난 시즌과 달리 전면에 역할을 해야 한다.

박정우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나에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니까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며 "항상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데, 코치님들이 너무 빨리 먹지 말라고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잘해야 된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쳐야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빛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함평에서 함께 뛰었던 이들과 외야에 나서는 만큼 '동반 활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박정우는 "지난해에는 형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해원이랑 외야 경험이 적은 형이랑 하나 한두 발 더 뛰는 것 같다. 이야기도 많이 한다"며 "해원이가 생각보다 긴장을 안 한다. 2군에 있을 때 같이 시합 많이 뛰었고, 선우 형도 함께 많이 뛰어서 '함평 타이거즈'라고 한다. 여기에 석환이까지 있으니까 더 그렇다(웃음). 사실 팀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함께 하니 기쁘다. 긴장 안 하게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KIA 외야에 경쟁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순위 싸움의 원동력이 되고 싶은 바람. 앞서 박정우는 슬라이딩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 지난 4월 16일 엔트리에서 탈락되기도 했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땀 생각이다.

박정우는 "다치는 것은 관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나는 홈런 타자가 아니고 한 번에 2점을 내는 타자는 아니다. 대신 수비로 3점을 막고, 맞아서라도 나가겠다"며 "작년에는 내가 못 해도 다른 선수들이 잘했다. 내가 못 해도 형들이 해줬는데, 지금은 같이 안 풀리고 같이 잘 된다. 열심히 응원하고, 파이팅하고, 나가서 다이빙 캐치도 하고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22경기만에 짜릿한 손맛...4호포 작렬

시카고전 3안타 3타점 2득점
샌프란시스코, 연장 끝 14-5 승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2경기 만에 홈런포를 작렬하고, 12경기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도 쳤다.

이정후는 7일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6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03에서 0.312(138타수 43안타)로 올랐다.

두 번째 타석에 짜릿한 손맛을 봤다. 이정후는 팀이 2-0으로 앞선 3회초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 콜린 레이의 시속 151km 직구를 받아쳤다. 타구는 시속 170km로, 117.3m를 날아가 외야 오른쪽 담을 넘어갔다.

이정후는 4월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홈런 2개를 친 뒤, 22경기 만에 대포를 쏘아 올렸다. 올 시즌 4호 홈런이다.

7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후는 상대 오른손 불펜 브래드 켈리의 시속 156km 빠른 공을 공략해 중전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지난 달 24일 밀워키 브루어스전(4타수 3안타) 이후 12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쳤다. 시즌 10번째 멀티 히트다.

이날 이정후는 1회에는 레이의 높은 직구로 배트를 휘둘러 삼진을 당했다.

5회에는 시속 158km짜리 빠른 타구가 우중간으로 109.4m 날려보냈지만, 중견수 피트 크로-암스트롱의 호수비에 걸렸다.

이정후의 활약 속에 5-3으로 앞서가던 샌프란시스코는 9회말 2점을 내주면 연장에 돌입했다.

11회초에 타선이 폭발했다.

이정후도 8-5로 앞선 연장 11회초 무사 만루에서 라이언 프레스리의 초구 시속 150km 직구를 공략해 1타점 우전 적시타를 쳤다. 월터 플로레스의 좌전 안타 때는 홈도 났었다.

이정후의 시즌 타점은 23개, 득점은 27개로 불렀다. 시즌 4번째 '3안타 경기'도 했다. 이정후는 아직 빅리그에서 '4안타 경기'는 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는 11회초에 9점을 수확하며, 14-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7일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3회초 투런포를 터트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IV 골프 더스틴 존슨, PGA 챔피언십 초청 선수로 출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이 LIV 골프 선수인 더스틴 존슨(미국)에게 대회 출전권을 부여했다.

AP통신은 7일 "LIV 골프에서 뛰는 존슨이 15일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초청 선수로 나오게 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랭킹 1위에도 올랐던 존슨은 2016년 US 오픈과 2020년 마스터스 등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그러나 2020년 마스터스 우승으로 받은 PGA

챔피언십 5년 출전권이 지난해로 끝났고, 세계 랭킹 포인트가 없는 LIV 골프에서 활약하면서 세계 랭킹도 하락해 올해 PGA 챔피언십 출전 자격이 없었다.

존슨은 PGA 챔피언십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US 오픈과 디오픈은 올해부터 LIV 골프 선수들에게도 대회 출전 자격을 받을 길을 열어줬으나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은 LIV 선수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은 LIV 선수들을 초청 선수 형식으로 대회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올해 마스터스에는 LIV 소속 선수 호아킨 니만(칠레)이 초청 선수로 출전했다. 올해 PGA 챔피언십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LIV 골프 소속은 16명이다. PGA 투어 선수인 리키 파울러(미국)도 존슨과 함께 올해 PGA 챔피언십 초대장을 받았다.

올해 PGA 챔피언십은 15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 클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외야가 나성범의 부상, 최원준의 부진으로 기회의 땅이 됐다. 오선우(왼쪽)와 박정우 등이 외야에서 어필 무대를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